

항공교통관제사

비행기의 모든 움직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작은 실수가 항공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필요하고, 항공통신장비 및 각종 첨단 장비를 사용하므로 기계 장비에 대한 흥미도 있어야 한다.
- 현실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협조심, 자기통제 능력,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마의 11분'을 책임지는 사람

비행은 5단계(이륙·상승·순항·진입·착륙)로 이 중에서 처음의 이륙 3분과 마지막의 착륙 8분에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를 '마의 11분(11 minutes of crisis)' 이라 부른다.

항공교통관제사는 공항 주위에서 유일하게 높은 건물인 관제탑에서 이 '마의 11분' 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주요 업무

-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기 위하여 비행기조종사에게 기상,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교통을 지휘한다.
- 관제탑에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 신고서를 확인하고 활주로 및 공항주변의 기상상태를 점검한다.
- 이륙 및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기의 목적지, 항공기 상태, 연료의 잔유량 등에 대해 교신한다.
-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 활주로, 예정 시간, 순서 등을 배정하여 유도하고 이·착륙을 허가한다.
- 접근 관제소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 등을 확인하고 항로의 상태를 파악하여 고도의 상승 및 강하 수준을 지시한다.
- 비상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비상 착륙 방법 및 비상 활주소에 대해 안내한다.

적성 및 흥미

-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며 기상이변 등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한 핵심능력

공간시각능력, 수리논리력

관련 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준비방법_자격증(항공교통관제사) 취득

항공교통관제사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단,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국토해양부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경기도 수색),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충남 해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 공군교육사령관항공교통관제사 교육원(경남 진주)이 있다.

두 번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9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배우거나, 또는 민간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에서 9개월 또는 270시간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세 번째, 항공교통관제사 시험과목을 교육받고, 6개월 또는 180시간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방법으로 자격증을 딴 후에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를 하여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가 된다.

직업 전망



- ▶ 항공교통관제사가 포함된 관제사는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보상이 높은 편이나, 복리 후생은 낮은 편이다.
- ▶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제한적이며, 취업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 ▶ 관제사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규 고용 및 고용 유지의 수준이 매우 높으나, 승진 가능성 및 직장 이동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 근무 시간이 길고 불규칙하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교통의 흐름을 통제하는 전문직으로, 업무의 자율성 및 권한이 크고 사회적 공헌도가 높으며,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높은 편이다.
- ▶ 양성평등 및 고령자 친화성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직업인 인터뷰_항공교통관제사 김선우



국토교통부 김포공항관리사무소
김선우 관제탑장

Q1. 항공교통관제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하늘에 떠다니는 항공기를 교통정리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공교통관제사라고 하면 관제탑 관제, 레이더 관제, 항로 관제로 나뉩니다. 레이더 관제는 접근 관제와 출발 관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관제탑 관제는 출발과 끝을 담당합니다. 차량으로 설명하면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대로까지 가는 역할입니다. 대로에서 톨게이트까지 가는 것이 레이더 관제이고,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까지 가는 것이 항로 관제입니다.

Q2. 직업과 관련해 하루 일과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항공교통관제사는 철저하게 팀별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하루 2교대로 주간 근무팀과 야간 근무팀으로 나뉩니다. 주간팀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간팀은 저녁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중간에는 15분간의 브리핑 오버랩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최소 인원은 탑장을 제외하고 총 6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이유는 집중력 저하와 매너리즘 때문에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씩 근무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Q3. 일을 하며 이 일을 하길 잘 했다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하루가 사고 없이 지나가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사는 만큼 하루의 업무를 무사히 마치는 그 순간에 항상 안도합니다.

Q4. 가장 중요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해당학교나 해당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실력을 갖춰야 하고 항공에 관련된 교양서적이나 기술서적 등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영어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문법보다는 대화 위주의 스피킹 실력이 요구됩니다.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EPTA'라는 항공 영어 구술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패스해야 국제공항 관제사로 진급합니다.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패스를 못 하면 관제 업무를 못합니다. 일정 레벨이 안 되면 행정 업무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성격적으로는 차분한 사람과 맞습니다. 순발력, 자제력,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문의 기관

-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 서울지방항공청 <http://sraa.molit.go.kr>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http://www.koca.go.kr>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커리어넷